

# 尹 “원전이 곧 민생,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 경남도청에서 민생토론회

### 원전 시설투자·연구에 세계 혜택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본격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출 성과를 언급하며 “먼저 3조 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계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원전 덕분에 값싼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산단 주변에 다양한 업종이 생긴다는 점

을 언급하며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가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와 획일적인 업종 제한을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단간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민간 투자 비중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단 길러 규제 허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 또 SMC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구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토해내야” 이준석 “위성정당 86억 보조금 쟁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개혁신당이 제3차대 통합으로 혁혁의원 5명을 채워서 받게 된 1분기 경상보조금 6억6000만원에 대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86억원의 보조금을 쟁긴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한다”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도가 없으니까(반납) 안 한다? 제도

가 없지 않다. 성의 있고 진정성 있으면 할 수 있다”며 “당비 모아 6억6000만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000만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며 “해산하고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즉각 글을 올려 “한 위원장이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며 “위성정당 대표로 당직자를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

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8조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위성정당은 위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이 34억,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8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며 “수익의 부당이익을 이번에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비겁한 위성정당을 안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세금 수습액을 아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앞서 제3차대 통합으로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용천 의원 등 의원 4석을 확보한 뒤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하루 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합류로 5석을 채워 6억6654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연합뉴스

## 국힘 ‘경기북도’ 분리 착수...규제 완화·특별회계로 지원

국민의힘이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지원하고 국무총리실 밑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획에 대한 내용은 반칸으로 남겨졌다. TF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김포시의 경우 앞서 말했듯 4·10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로 편입되길 원하는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경기북부 분리와 서울 편입 문제를 한꺼번

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는 서울·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경기 북부와 남부는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1인당 GRDP(지역총생산)와 재정 자립도가 절반 안팎”이라며 “특별회계 규모는 아직 얘기하기 어렵지만 경기 남부에서 넘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NBS 조사,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상승 3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포인트(p)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8%, ‘잘못하고 있다’는 55%였다.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p 내렸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40%, ‘신뢰하지 않는다’는 55%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조사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5%p 상승, ‘신뢰하지 않는다’는 7% 하락했다.

4월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4%로 직전 조사 대비 3%p 하락했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8%로 4%p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1%,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4%였다. 국민의힘은 이전 조사 때보다 2%p, 민주당은 1%p 각각 올랐다.

지역구 투표 정당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1% 등 순이었다. 비례대표 투표는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 33%,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25%, 개혁신당 6%, 녹색정의당 2%, 등이었다. 총선 제1당 예상 전망은 민주당 41%, 국민의힘 39%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7.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아토피 초등학교, 장성으로 유학오세요

## 아토피 유학 설명회

- 장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 일시 : 2024년 02월 28일 (수요일) 15:00

## 우리 아이 아토피! 온 마을이 함께합니다

- 피부과 전문의 및 한의원의 정기 진단 진료
- 통합의약의 입장에서 전문약사가 진행하는 숲이 보낸 처방전
- 숲해설가 및 산놀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숲속 놀이
- 놀이 전문가가 진행하는 황토길 산책 및 맨발걷기
- 전문한의사를 한방주치의 제도 아토피 제로
- 교육심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 숲에서 이루어지는 1박2일 가족캠프

## 특별혜택 - 거주 펜션 지원 (선착순 30명)

축령산 자연속에서 신나게 놀아요  
아토피 관련 치유 프로그램  
다양한 방과후 특별교육(물놀이 숲놀이)

## 1급수 축령산 모암저수지 어린이 물놀이터, 숲놀이터 개장예정

전라남도 장성교육 지원청 (061) 390-6000